

【 2017.3.22(수) 강원일보 】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22일 낮 12  
시 동흥천~양양  
간 고속도로 인  
제터널 현장 사  
무실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

# 건설·관광업 '올림픽 효과' 성장세 뚜렷

한은 강릉본부 경제포럼  
건설업 GRDP +5.2%p  
관광업 유치 후 상승세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준비가 강릉 등 도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강릉본부 권준모 과장은 21일 강릉본부에서 열린 '강원 영동 경제포럼'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

회 준비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1조6000억원(경기장 9000억원, 교통망 구축 9조6000억원, 부대시설 건설 1조1000억원 등)의 투자재원이 대회시설 및 SOC 건설에 투입됐다.

이로 인해 동계올림픽 유치 이전인 2008~2011년 중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전국평균에 비해 평균 0.7%p 뒤쳐졌던 강원도가 올림픽 유치

이후인 2012~2015년 중에는 전국 평균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증가율 격차가 해소됐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전국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관광업도 동계올림픽 준비기간 중 전국과의 성장률 격차가 좁혀졌다.

강릉 등 도내 건설업의 GRDP 증가율은 올림픽 유치 전까지만 해도 전국평균에 비해 -3.7%p씩이나 차이를 보였으나, 유치 이후에는 +5.2%p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주로 건설업에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대회 이후에는 생산·소득·고용 증대효과가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권준모 과장은 "동계올림픽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성공적 대회 개최 뿐 아니라 '올림픽 개최지'라는 브랜드 가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관광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정민 koo@kado.net

건설 강원도회, 인제터널 현장 사무실에서 운영위 개최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사진)는 22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운영위는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 인제터널 현장 사무실에서 열린다. 오인철 회장은 운영위를 주재하고 건설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 제111회 정기총회

조합원 위해 수수료 내리고도 사상 최대 순이익

철저한 경영관리 통해  
구상채권 발생 등 예방  
작년 당기순익 1720억  
조합원에 915억 환원



건설공제조합은 2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안과 올해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은 2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2016사업연도 결산 결과, 전년 동기 대비 82.9% 증가한 17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 설립 이래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당기순이익의 53.2%인 915억원(1좌당 2만 4000원)을 현금배당으로 조합원에게 환원키로 의결했다.

조합은 지난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수

수로 및 용자금 이자율을 인하여 보증수수료·용자이자 수익이 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줄었다. 대신 조합은 철저한 경영관리로 보증대금급 등 구상채권 발생을 예방하고 회생업체 정상화 유도 등을 통해 총비용을 전년 대비 938억원 절감했다. 또 신상품 출시와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 등으로 479억원의 공제사업 수익을 냈다.

조합은 올해도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목표로 조직 효율성 제고, 성과 중심 경영관리의 정착, 성장동력 확대 및 리스크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사상 최대의 경영성과를 달성하고 그 과실을 조합원과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런 성과를 토대로 조합원들의 경

영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보증수수료 인하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역량 강화로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조합에 박수를 보낸다”며 “올해도 부단한 경영혁신과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로 건설 전문 보증기관으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합은 건설산업의 신수요 창출을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함께 추진 중인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참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과 10월에 각각 ‘조합원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